

2008 LA International Textile Show 참관기

남 창 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8 LA International Textile Show가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LA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textile show는 매년 열리는 대규모 섬유전시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유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LA 시장의 소재와 제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본 전시회는 섬유소재, 제품, 색상, 디자인뿐만 아니라 섬유용 부자재까지 전시되어 명실상부한 섬유제품의 종합전시회라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번출장에는 파테말라 등 북중미의 한국 업체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LA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섬유전시회를 참관하게 되어 미국시장의 변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또한 전시회와 함께 미국 내 최대 섬유시장이라 알려진 LA 자바 섬유시장을 방문하여 미국 섬유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도 함께 가질 수 있었다. 먼저 이번 LA 전시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행사명 : LA International Textile Show(Preview in LA)
- 개최기간 : 2008년 10월 27일(월)~10월 29(수), 3일간
- 개최장소 : 미국 LA, California Market Center(CMC) 13층
- 전시규모 : 280여 개사 출품, 302부스
 - 프랑스(24개사), 터키(15개사), 인도(8개사), 스페인(5개사), 일본(2개사), 대만(1개사)
 - 한국업체 : 77개사 80부스(소재 : 56개사, 의류 및 부자재 : 21개사)
- 출품내용
 - Accessories : 약 50여 개사
 - Interiors : 약 70여 개사
 - Design & Direction : 약 20여 개사
 - Fancy : 약 80여 개사
 - Tailored/technology : 약 60여 개사

현지 소재 전문 전시회인 LA International Textile Show에 별도의 한국관을 구성(소재+의류)하여 내부적으로 Preview in LA라고 명명하여 바이어에게 차별화된 한국산 소재 선택의 기회 제공하였으며, 타 국가에 비해 한국 별도로 현지업체, 정관계 인사와의 개막식행사, 기자회견, 리셉션, 패션쇼 진행으로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였다. 이번 한국 업체들의 전시회를 지원하기 위해 KOTRA 및 한국



Figure 1. LA Int'l Textile Show 안내문.

섬유산업연합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참가한 업체들은 이러한 기관의 지원에 큰 만족을 나타내었고, 전시회 참가의 결실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바이어와의 상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LA International Textile Show에는 약 280여 개 업체가 출품하여 인체친화, 환경친화, 기능성, 심미학적인 원사, 원단 등이 전시제품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한국업체도 70여 개 참가하여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인 개방 부스와는 달리 세계적 유명 maker는 자체적으로 폐쇄적인 부스를 운용하여 자체 바이어들 위주로 최신 제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 단순한 전시참관만으로는 선진 maker의 소재 및 제품정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시회 방문객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되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소재업체들 대부분은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경량화, 천연 친환경 소재 및 고기능성 소재 위주로 아이템을 구성해 바이어들의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특히 모달, 텐셀, 린넨, 실크 등 천연교직물 등의 신합섬 및 천연 기능성 직물들과 다양한 후가공 직물들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던 미국 내 고부가가치 소재 시장공략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전시회를 참관한 바이어들도 한국산 소재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해 가격대비 양호한 품질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한국업체의 부스를 찾은 바이어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상담건수 및 상담금액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업체



Figure 2. LA Int'l Textile Show 전경.

1:1 바이어 상담회의 경우 10.27(월)~28(화), 총 2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최근 미국 내 금융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당초 방문키로 예정된 바이어들의 참가가 적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부스 구성은 CMC 1층과 13층에 한국관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의류업체의 경우 지난해 지하 1층에서 금년에 1층으로 변경해 바이어와의 동선효과를 높이는 효과를 얻은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실제 전시회 참관을 위해 CMC 빌딩을 방문하였을 때, 1층 대부분이 한국업체들로 구성되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향상에 크게 고무되었다. 오히려 일부 참가자들은 13층의 본 전시관보다 1층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LA International Textile Show의 장점은 중국 참가업체가 없고 프랑스, 터키, 일본 등 일부 인지도 있는 국가의 참여로 타 전시회에 비해 고급 이미지의 제품 전시회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근 LA 자바시장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대금 지급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의 시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한국과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 별도의 Pavilion(24개사)을 구성해 참가하였으며, 대부분 별도의 개별부스를 구성하여 바이어와의 상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참가한 한국업체에 비해 활발한 상담과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어 부러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업체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LA 지역 바이어들은 최근 몇년간 대형 바이어의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바이어들 위주로 대부분 소량 주문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대형 수입상보다는 부띠끄 수준의 중소형 바이어들이 많이 방문해 국내 중고가 제품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 바이어의 경우 대부분 한국산 원단 및 제품의 품질은 인정하면서도 가격이 비싸다고 평가하여 아직도 한국산 제품이 품질대비 미국 내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형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시회 참관을 마치고 인근의 LA 자바시장을 방문하였다.

LA에서 가장 큰 섬유유통시장인 자바시장은 LA시의 패션 관련 업체들의 약 45% 가량인 4,400개 업체가 Los Angeles Fashion District에 상주하고 있는 시장으로 Los Angeles Fashion District는 LA 다운타운 중앙부에 약 1,800만 평방미터 부지, 94개 블록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LA 섬유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자바시장은 섬유관련 디자인, 제조, 유통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미국 서부지역 최고의 의류 상권인 동시에 섬유 및 관련 부자재의 최대 수요처이며, 자국시장뿐 아니라 멕시코, 남미, 유럽 등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기지 역할도 겸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규모의 시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LA 자바시장도 최근 중국산의 대량 유입, 대형 바이어들의 합병, 불법이민자 고용에 따른 이미지 훼손 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외 수입산 증가, 바이어들의 압력,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 선호 등으로 최근 LA 섬유시장은 가격하락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과거 브랜드 중심 소매패턴을 보였던 최대 소비계층인 중산층이 품질기준 소매패턴으로 바뀌어 품질이 개선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형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LA 섬유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자바시장(다운타운 소재)의 의류 유통규모는 대략 71억 달러로 추정되며 상권의 70%

를 1,400여 개의 재미 한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이들 한인상권의 규모는 대략 50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LA 자바시장은 2008년 4분기 이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시장전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다시 유대계 수입상들이 수입원단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 업체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많은 한국 업체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한미 FTA 타결로 자바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업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반면 한국 업체들의 협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인데, 향후 관련 업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재기획에서부터 소재디자인, 패션디자인 및 봉제오더까지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 남 창 우 -----

- 1987.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 1989.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석사)
- 2000.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박사)
- 1989-1994. (주)효성 중앙연구소
- 2000-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가공팀 수석연구원

